

#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'첨단기술+생태 중심주의' 파리테크 축제	파리
문화·관광	3	유희 사적 공간,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	보스턴
사회·복지	4	청년 독립 지원하는 '지오바니시' 프로젝트	토스카나
도시계획·주택	6	나이기준 상향 등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보완	버밍엄
	8	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등 지원	빅토리아
	10	시민·대학·전문가·행정기관 연계 빈집문제 해결	교토
정보·기타	12	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을 '스마트파크'로 조성	런던



## ‘첨단기술+생태 중심주의’ 파리테크 축제

6월4일~7월7일 ...드론 축제·센강의 미래 등으로 구성

프랑스 파리스 / 산업·경제

- 첨단기술의 경제적 역량에 주목한 프랑스 파리스는 해마다 증가하는 발명·발전·혁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‘파리테크 축제’(Paris Tech Festival)를 2017년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
- 배경과 개요
  - 미래 일자리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투자가 필수라고 인식
    - 파리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억 유로(1,300억 원)를 투자해 1km<sup>2</sup>의 부지에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
    - 파리에 국제 혁신 허브를 설립하고, 60여 개의 선도적 혁신기업을 유치
  - 파리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‘파리테크 축제’ 개최
    - 핵심 목표는 첨단기술과 생태 중심주의의 결합
    - 관련 기업과 시민 간에 다양한 만남과 교환 및 실험이 이루어질 것
    - 시너지 효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
- 주요 프로그램 소개
  - 드론 축제
    - 관광 명소이자 시내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
    - 드론 기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알리고 시민들을 드론에 친숙하게 만들기
    - 전문 조종사들의 드론 레이스 개최
  - ‘센강의 미래’ 축제
    - 각국의 생태계(Eco System) 테크놀로지를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
    - 유럽에서 가장 큰 디지털 혁신 축제로, 2016년에는 5만 5천 명이 참가
    - 2017년에는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에 관한 콘퍼런스도 개최 예정

- ‘메이커 페르 파리’(Maker Faire Paris: 메이커를 만드는 파리)
  - 과학기술 혁신과 창의성, 발명, DIY(Do It Yourself) 등의 주제로 열리는 시민 박람회이자 혁신 이벤트
  - 관련 전문가·예술가·발명가·대학생 등이 참여하며, 자신의 발명품을 하나의 ‘메이커’로 만들어 홍보
  -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센터이자 무료 도서관인 ‘과학-산업 기술센터’(Cité des Sciences et de l’Industrie)에서 개최
- ‘비바 테크놀로지’(Viva Technology) 국제 이벤트
  - 스타트업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다루는 이벤트
  - 스타트업과 대기업, 혹은 투자자나 다른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협력의 장
  - 스타트업의 최신 발명과 혁신을 소개하고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
- 패션 테크 축제
  - 패션 관련 제품의 생산·유통·소비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
  - 혁신과 테크놀로지를 패션·미용·예술 등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
- ‘파리 위셰어 축제’(Paris OuiShare Festival)
  - 공유경제와 미래 도시에 관한 선도적인 국제 이벤트
  - 예술가·기업인·활동가·공무원·국회의원 등이 모여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
  - 도시 거버넌스, 도시 관련 데이터의 생산과 공개, 도시에서의 공유경제 등에 관한 지식을 생산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innovation-paris-cree-le-paris-tech-festival-4710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## 문화·관광

### 유허 사적 공간,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

미국 보스턴시 / 문화·관광

- 미국 보스턴시는 지역사회 민간 사업자와 도시 정부, 관련 연구기관,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에 도시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적 공간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
- 배경
  -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에 활용 공간이 부족
    - 특히 공연 분야의 연습·리허설·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
  - 보스턴시 문화예술부는 예술가 집단을 지원하고 유허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
- 주요 내용
  -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‘AT&T’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
    - ‘이퀄리브리엄 앙상블’(Equilibrium Ensemble)과 ‘캐슬 오브 아워 스킨스’(Castle of our Skins)의 두 예술단체가 선정
  -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·이비인후과 병원(Massachusetts Eye and Ear)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
    -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
    - 지원 단체의 활동 성격, 공간이 필요한 정도, 보스턴시의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  -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 성과를 거두면 더 많은 유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https://www.boston.gov/arts-and-culture/alternative-space-pilot-project-artists>

김민희 통신원, minhee.kim.crp@gmail.com

## 사회·복지

### 청년 독립 지원하는 ‘지오바니시’ 프로젝트

이탈리아 토스카나주 / 사회·복지

-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청년들이 경제적·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·직업·주거·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‘지오바니시’(GiovaniSi) 프로젝트를 운영
- 개요
  - ‘지오바니시’는 젊음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‘지오바니’(Giovani: young)와 긍정을 뜻하는 ‘시’(Si: yes)의 합성어이며, 단체명이자 프로젝트명
    - 토스카나주 소속 청년단체로 2014년 결성되었으나, 현재는 주정부의 적극적 후원과 국립 및 유럽연합의 펀드를 받아 운영되는 사회적 단체
    - 청년들이 경제적·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업 교육·트레이닝·스타트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
  -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토스카나주 청년은 정해진 기간에 정식 지원서와 필요한 개인정보를 문서로 제출
- 중점 지원 분야 6개
  - 1) 인턴십(Internship)
    - 18~29세의 학생 혹은 졸업한 청년에게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
    - 주정부는 인턴십을 수락한 회사·단체에 청년 인턴의 월 급여 중 500유로(62만 원)를 지원
  - 2) 주거(Housing)
    - 18~34세의 청년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해당 청년의 월세 보조금으로 월 150~350유로(18만 5천~43만 원)를 3년간 지원

- 3) 사회 서비스(Civil Services)
  - 18~29세의 청년에게 의료·환경·문화·복지·이민·소비자 보호 등의 사회 서비스 혹은 교육 비용으로 월 최대 433유로(53만 5천 원)를 지원
- 4) 교육과 트레이닝(Education and Training)
  - 청년들에게 교육·트레이닝·특수분야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장학금과 프로그램을 기획
- 5) 창업(Entrepreneurship)
  - 18~40세의 청년에게 창업 자본금과 사업 지속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
  - 농업 분야의 스타트업은 토스카나주에서 가장 장려하는 분야이며,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농부에게 4만 유로(4,930만 원)의 지원금을 제공
- 6) 고용(Employment)
  -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에게 무료로 협업(co-working) 공간과 사업 서비스를 지원
- 기타
  - ‘지오바니시’ 프로젝트 참여 후에는 ‘지오바니시 플러스’(GiovaniSi +) 프로그램에 참여해 추가로 법률·문화·스포츠·사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음
  - 공식적인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청년의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공유하는 블로그 오픈
    - ‘아첸티-청년들의 스토리텔링’(Accenti-Lo Storytelling di GiovaniSi)이라는 이름이며, ‘아첸티’는 집중·강조(accent)를 뜻하는 이탈리아어

<http://giovaniSi.it/>

<http://giovaniSi.it/2017/04/12/co-working-in-arrivo-311-mila-euro-in-tre-anni-per-sviluppo-attivita/>

<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-/progetto-giovanis>

<http://open.toscana.it/>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## 도시계획·주택

### 나이기준 상향 등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보완

영국 버밍엄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버밍엄시는 기존 사회주택(Social Housing) 입주자 선발기준이 정말로 사회주택 입주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, 이를 보완한 새로운 입주자 선발 가이드라인을 2017년 4월 20일 발표
- 배경
  -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의 보완 필요성 제기
    - 사회주택은 버밍엄시와 비영리 주택협회(Housing Association)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    - 기존 입주자 선발기준인 주거환경 포인트 제도로는 정확하게 사회주택 입주가 필요한 지원자를 가려내기 어려움
    - 공급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 입주자 선발기준에 문제
  - 시정부는 2017년 4월 20일 새로운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 가이드라인을 발표
- 지원 자격과 방법
  - 연령 기준을 높이고 지원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
    - 기본적으로 누구나(anybody) 지원할 수 있지만,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시정부의 입주자 대기 명부(Council's housing register)에 등록 가능
    - 지원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상향
    - 지원자, 배우자 혹은 파트너, 함께 거주할 가족 구성원 등을 명시
  - 지원자는 버밍엄시와 지역 연계성이 있어야 함(군인 제외)
    - 버밍엄에 12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
    - 버밍엄에 있는 누군가의 생계를 지속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
    - 버밍엄에서 일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, 혹은 직업 훈련이나 고등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

- 주거 문제로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있거나 다른 주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시정부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
-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
  - 법에 따라 이민 통제를 받는 사람 혹은 외국인
  - 지원자 본인 혹은 공동 거주자가 임차 조건 위반으로 퇴거 처분을 받았던 경력이 있거나, 관련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
  - 영국 정부의 일반적 연금수급 규정에 근거한 저축 예금 상한선보다 더 많은 예금을 가진 사람
  - 지원자 본인 혹은 공동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
  - 가정폭력 가해자
- 지원자의 입주 우선순위를 4단계의 밴드(Band)로 분류
  - 밴드 1: 현재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사람임. 6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
  - 밴드 2: 현재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주거환경 평가에서 한 가지 영역만 미달인 사람임. 12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
  - 밴드 3: 작은 규모의 집(방 1개)에서 여러 사람이 밀도 있게 살고 있으며, 주거환경 평가에서 합당한 결과를 받은 사람임. 18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
  - 밴드 4: 현재 주거환경에서 이사를 원하고 있으며 충분한 주거환경 평가 결과를 받지는 못했지만, 사회주택에 지원할 자격은 갖춘 사람
- 버밍엄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며, 온라인 지원이 어려울 때는 시청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
- 입주자 선발은 주거환경 평가 결과와 밴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버밍엄시의 ‘선택 기반 임대주택 시스템’(Choice Based Letting system)에서 결정

[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info/20006/housing/1213/housing\\_allocation\\_scheme](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info/20006/housing/1213/housing_allocation_scheme)

[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downloads/download/804/housing\\_allocation\\_scheme](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downloads/download/804/housing_allocation_scheme)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

##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등 지원

호주 빅토리아주 / 도시계획·주택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최근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‘빅토리아인들에게 주택을’(Homes for Victoria)이라는 이름의 종합 주택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집중적으로 지원
- 배경
  - 나날이 악화되는 호주 주택 문제
    - 호주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시민들의 주거지불능력 악화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으며, 임대주택도 수요 상승으로 임대료 상승
  - 주택 구매력 악화의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과 초기 비용
    - 2016년 멜번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2년에 견줘 40% 증가
    - 주택 구입 시 소요되는 은행 보증금, 취득세, 거래 비용 등의 초기 비용 (upfront costs)도 주택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
  - 특히 젊은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이 두드러지게 하락
    - 빅토리아주 전체 주택 소유율은 1995년 76%에서 2014년 69%로 하락
    - 25~34세 연령층의 2014년 현재 주택 소유율은 38.7%
    - 특별한 정책적 대응이 없는 한 젊은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내려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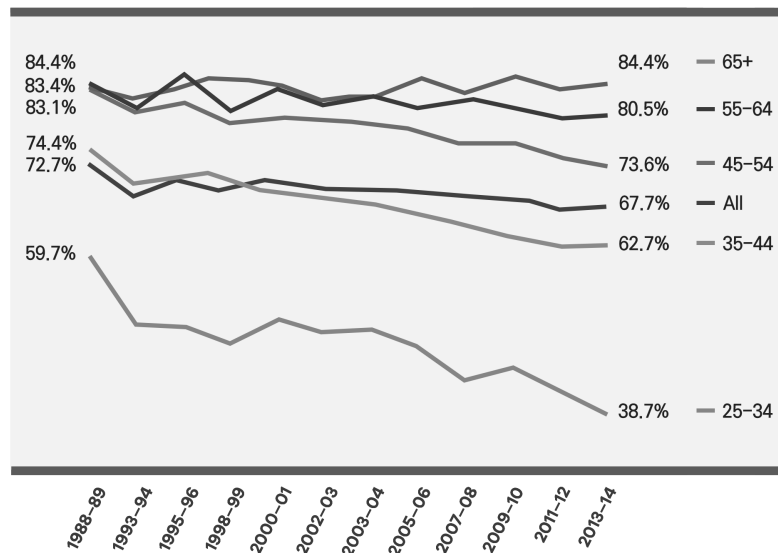


그림. 빅토리아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 변화

- ‘빅토리아인들에게 주택을’ 정책 개요
  -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 개입영역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
    - ① 주택 소유율 증가, ② 주택 공급 증가, ③ 세입자 주거 안정성 강화, ④ 사회·공공주택 확대 및 개선, ⑤ 취약계층 보호 강화
  - 주정부는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
  -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정책이므로 주정부 역사상 최대의 예산을 준비
    - 사회·공공주택 지원에 20억 호주달러(1조 7천억 원), 첫 주택 구매자 지원에 9억 호주달러(7,800억 원), 공동소유제 등의 신규 정책에 7억 7천만 호주달러(6,600억 원)의 예산을 책정
  
-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 방안
  - 첫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
    - 주택가격 60만 호주달러(5억 2천만 원) 이하는 취득세를 완전 면제, 75만 호주달러(6억 5천만 원) 이하는 단계별 감면
  - ‘첫 주택 구입 보조금’(First Home Owner Grant) 인상
    - 현행 최대 2만 호주달러(1,800만 원)의 보조금을 4만 1천 호주달러(3,600만 원)로 인상
  - ‘주택 공동소유제’(share equity) 도입
    - 은행 보증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
    - 정부는 주택 지분의 최대 25%를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, 주택 구매자는 그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이자만 납부
    - 연간 개인 소득 7만 5천 호주달러(6,500만 원) 혹은 가구 소득 9만 5천 호주달러(8,200만 원) 이하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자격 부여
  - ‘공실세’(Vacant Residential Property Tax) 도입
    - 대량 구매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만을 추구하거나,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담능력이 낮은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임대인에게 부과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homes-for-victorians/>

[http://www.vic.gov.au/system/user\\_files/Documents/housing/FINAL%20PDF%20DTF046\\_Q\\_housing01.pdf](http://www.vic.gov.au/system/user_files/Documents/housing/FINAL%20PDF%20DTF046_Q_housing01.pdf)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## 시민·대학·전문가·행정기관 연계 빈집문제 해결

일본 교토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일본 교토市는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시민·대학·전문가·행정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‘교토시 빈집 대책 계획(京都市空き家等対策計画)’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예정
- 배경
  - 교토시는 2013년부터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
  - 기존 정책의 성과에 학자·전문가·사업자·지역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‘교토시 빈집 등 대책 협의회(京都市空き家等対策協議会)’의 논의를 더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대책을 수립
- 개요
  - 빈집을 생활환경의 기반이자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,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
  - 다양한 주체(빈집 소유자·시민·사업자 및 전문가·행정) 간의 연계를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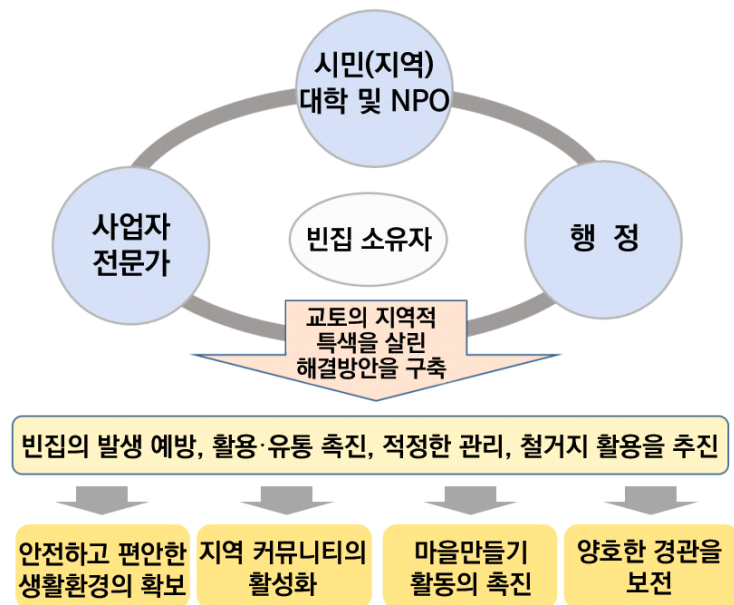


그림. 교토시 빈집 대책의 개념도

표. 주체별 주요 역할

시민(지역)	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빈집문제 해결에 동참
대학·NPO(비영리 민간단체) 등	각자의 전문화된 능력을 살려 빈집문제 해결에 협조
사업자 및 전문가	빈집의 활용과 유통의 촉진에 힘써야 함
빈집 소유자	빈집의 활용에 힘쓰고 빈집을 적정하게 관리
행정	빈집 등의 활용 및 유통, 적정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의식 계몽 및 정보 제공 활동, 컨설팅 등의 시행 지역이 추진하는 대책을 지원하고, 관련 자치 조직·사업자· 민간단체 등의 참가와 협력을 도모

-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주요 과제
  - 빈집 발생을 예방
    - 빈집의 상속·등기·가족 신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활동
    -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상속 제도를 구축
    - 빈집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
  - 빈집의 활용·유통을 촉진
    - 빈집의 활용 희망자와 소유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
    - 빈집을 숙박·관광 시설이나 지역 교류 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 교류 인구의 증가를 촉진
    - 이주 촉진, 육아·고령자 지원, 고용 창출, 문화예술 도시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의 추가 수요 확보방안 마련
  - 빈집의 적정한 관리와 철거지 활용
    - 빈집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리 대행 서비스와 연계
    -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철거비를 보조하고,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마을 광장 등으로 조성하면 철거비와 광장 조성비를 지원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page/0000215360.html>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cmsfiles/contents/0000215/215360/kohosiryo.pdf>

[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cmsfiles/contents/0000215/215360/akiya\\_keikaku\\_gaiyo.pdf](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cmsfiles/contents/0000215/215360/akiya_keikaku_gaiyo.pdf)

이용원 통신원, udesigner201@gmail.com

## 정보·기타

###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을 ‘스마트파크’로 조성

영국 런던市 / 정보·기타

- 영국 런던市는 다양한 미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‘스마트 런던’(Smart London)을 추구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여러 혁신 사업 중 하나로 ‘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’(Queen Elizabeth Olympic Park)을 ‘스마트파크’로 조성할 계획
- 배경
  - 다양한 미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‘스마트 런던’ 정책기조
    - 런던 인구는 2030년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며, 교통·건강·복지·에너지·환경 등의 도시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
    - 2013년 보리스 존슨(Boris Johnson) 전임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스마트 런던’을 정책기조로 제시했고,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
  - ‘스마트파크’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혁신 중 하나
- ‘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’ 개요
  - 2012 런던 올림픽을 맞이하여 런던 내 비교적 낙후된 동쪽 지역의 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립한 공원
  -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시설과 1만 호의 주택과 각종 경제·문화·교육·디지털 허브 시설이 갖춰진 0.45km<sup>2</sup> 규모의 복합 공원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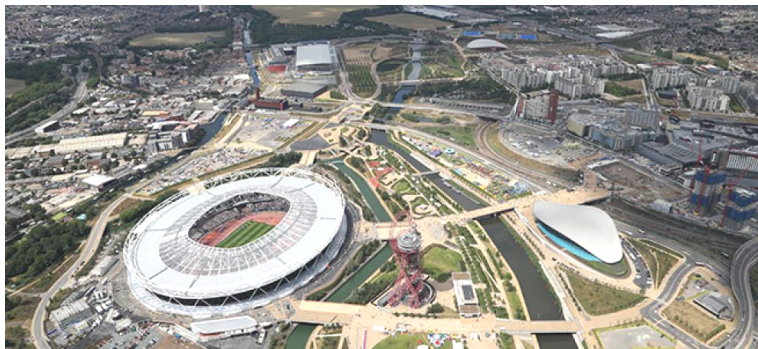


그림.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전경

- ‘스마트파크’ 주요 내용
  -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공원
    - 공원 자체 앱을 이용하여 공원 내 길찾기와 최신 이벤트 정보 업데이트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음
  - ‘스마트 런던’ 사업의 하나인 ‘혁신 네트워크’(Smart London Innovation Network)와 결합
    - 공원 지역 내 시민 혼잡 관리, 환경 감시, 커뮤니티 형성, 방문객의 공원 이용 효과 제고 등의 스마트 기능을 실현
  - 런던개발공사가 지속적이고 스마트한 통합 관리 담당
    - 공원 내 모든 개발 사업을 저탄소 냉·난방 네트워크와 연계
    - 공원 내 새로운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산업 기준의 64% 이하
  - 자연 친화적 조경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홍수에 대응
    - 2종류의 멸종 위기종이 공원 내에 서식
  -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공원의 개발과 관리·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business-and-economy/science-and-technology/smart-london/queen-elizabeth-olympic-park>

<http://smarterlondon.co.uk/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business-and-economy/science-and-technology/smart-london/smart-london-case-studies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